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순 미

2010년 8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양 순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양순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dCollection @ jeju

< 국문초록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양 순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별, 학년별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떠하며, 지각된 양육태도의 유형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해 있는 5개 대학교 재학생 500명중 40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를 위해서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고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 사용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aire) 척도중 수용-거부 차원의 30문항과 정원식에 의해 제작된 가정환경 진단검사중 자율-환경 차원의 30문항을 구성하여 권순명(1993)이 개발한 Likert식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위해서 Crities(197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원중(1984)이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김옥숙(2001)이 수정 보완한 것

1)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dCollection @ jeju

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정적상관을,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별로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인 모두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예언변인임이 나타났다. 하위변인중 통제적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보다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넷째,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성숙간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도 함께 고려하여 대상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처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고,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어야 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시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있는 의식전환프로그램 적용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여 안정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dCollection @ jeju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부모의 양육태도 ····· 6
1)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 ····· 6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 7
2. 진로성숙도 ····· 10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 11

Ⅲ. 연구방법 ····· 13
1. 연구대상 ····· 13
2. 측정도구 ····· 14
3. 연구절차 ····· 17
4. 자료처리 ····· 17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19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 26
1. 요약 ····· 26
2. 결론 ····· 29
3. 제언 ····· 30

참고문헌 ····· 32
Abstract ····· 36
부 록 ····· 39

dCollection @ jeju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연령, 부모학력, 경제수준별 분포 ····· 13
<표Ⅲ-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 15
<표Ⅲ-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계수 ····· 15
<표Ⅲ-4>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 16
<표Ⅲ-5> 진로성숙도의 신뢰도계수 ····· 17
<표Ⅳ-1>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 19
<표Ⅳ-2>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9
<표Ⅳ-3> 성별과 진로성숙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0
<표Ⅳ-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간의 상관분석 ····· 21
<표Ⅳ-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인들과 진로성숙도간의 상관분석 ····· 21
<표Ⅳ-6>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 22
<표Ⅳ-7> 진로성숙에 대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회귀분석 결과 ····· 23
<표Ⅳ-8>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분석 ····· 24
<표Ⅳ-9>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25
<표Ⅳ-10>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량분석 결과 ····· 25

dCollection @ jeju

그 림 목 차

[그림Ⅱ-1] Symonds(1949)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 ····· 7
[그림Ⅱ-2] Schaefer(1959)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 ····· 8

dCollection @ jeju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의 세계가 더욱 폭넓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과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진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진로에 대한 발달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으로써 초등학교는 진로의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전문화단계로 볼수 있다고 하였다(김충기, 2000). 또한 좌태실(2006)에 따르면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중 하나인 진로선택이 대학시절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발달단계에서의 대학시절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선택을 하여 그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습득하고 연마해 나가야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학생들의 실태를 살펴볼 때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전공에 흥미를 갖지 못하여 전과를 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 또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휴학과 자퇴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리포트 제출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흔히 대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자신의 진로의지나 적성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바램과 기대, 경쟁위주의 사회흐름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이나 주변의 상황에 맞춰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학에 와서 진로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한 현실 때문에 졸업을 유

Collection @ jeju

예하는 상황은 최근에 흔하게 일어나는 풍토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이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현재 진로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중에 이기학·조영아·송소원(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 타인들의 시선과 평판에 대한 의식 때문에 진로를 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현주(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있어서 개인 외적 세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찰과, 진로 결정 과정에 중요 타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강조하였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 타인들로는 또래, 교사, 가족, 친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 타인들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은 부모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 오윤희(2006)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가정환경이라 하였으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써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이며 부모는 자녀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이현숙, 조한익, 2004).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교육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이며 방향성을 가진 문화방시이라고 정의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 우영지, 2007에서 재인용)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가 어떠한가 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에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이라는 상호적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dCollection @ jeju

러한 영향은 다시 자녀가 외부세계에 대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미숙(2009)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특별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것은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오성심 · 이종승(198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의적 안정성, 높은 사회성과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균형적인 발달에 내적 · 외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내에서 먼저 형성되어 개인의 직업 선택 및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Super와 Forrest(1972)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자아개념의 표현이고 실행이며, 직업 발달의 과정은 자아개념의 발달을 포함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 접촉하는 사람이 성격형성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나 자녀양육태도는 그들의 성격과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들은 개인의 진로유형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적 능력, 인성특성 및 직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며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외에 사회와 가정에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일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실현해 나가고 진로 선택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이 결정되고 그로인해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누구나가 자신들의 자녀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게 되고, 그러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업성적을 높이고, 좋은 학교의 진학을 위한 교육을 강요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업성적이나 좋은 학교의

dCollection @ jeju

진학 만큼이나 자녀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성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거나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 중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같은 연구는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교육,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의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중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 보다 진로 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1-2.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에 따라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수용-자율)일때 진로성숙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거부-통제)일때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dCollection @ jeju

가설 3.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가설 4.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1.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JEJU 1952

dCollection @ jeju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은 인간관계 형성을 비롯한 인·지적 기초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다. 옛 어른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첫 대면을 할 때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고 하였다. 장난말 일지라도 '코가 작다'거나 '손가락이 이상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기시 하였던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첫인상이 중요하듯,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누군가와의 교감이 어떤가에 따라서 아기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이 가정이므로 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에서 부터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 사회화, 습관, 가치관 형성 등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관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18세기 이전에는 엄격한 훈련이나 체벌이 가장 효과적인 양육태도라고 여겨졌으나, 소아와 심리와 관련된 의학과 학문 등의 발달로 여러 분야에서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dCollection @ jeju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내적 행동까지도 포함한다(소희숙, 2003).

Fishbein(1975)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라고 규정하였다. 김재은(198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며,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 가는 것이라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 정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오숙정, 2001).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학자는 Symonds(1949)이며, Symond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차원<그림Ⅱ-1>으로 분류하였다(이경숙, 200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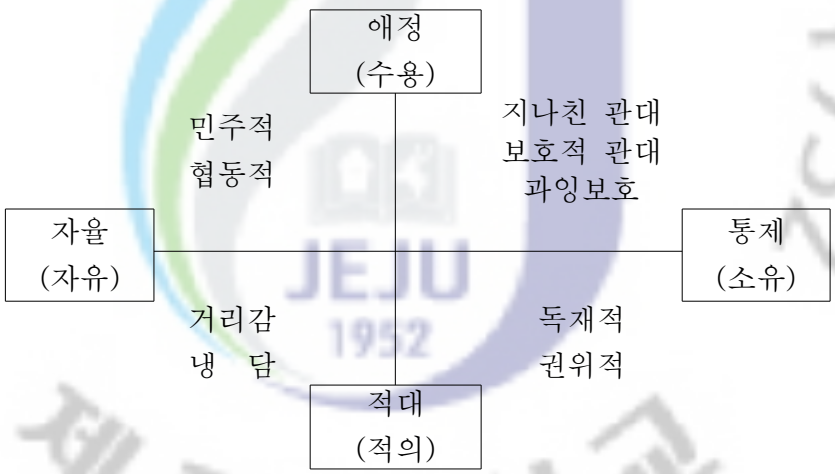
[그림Ⅱ-1] Symonds(1949)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지배적이면 자녀를 소중히 다루지만 부모의 의도대로 하려는 간섭의 태도가 나타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dCollection @ jeju

지배적이고 거부적이면 잔혹한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거부적이고 복종적이면 무관심한 태도가 나타나고, 복종적이고 수용적이면 자녀를 소중히 다루고 자녀의 의도대로 부모가 따르는 익애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원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그 외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모두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적 임상사례에 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함으로써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을 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Schaefer, 1959),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두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림Ⅱ-2>와 같다.



[그림Ⅱ-2] Schaefer(1959)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

Schaefer(1959)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자율적 태도는 민주형의 양육태도로서 아동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잘하며, 또한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집에서는 복종을 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이나 고집을 보일

dCollection @ jeju

때도 있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태도로 아동은 의존적이며 사교성과 창조성이 떨어지며, 인내심에 있어서 극단적이며, 어릴때는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도전적 행동이 낮고 비행을 하지 않으며, 학교 일에 열성적이다. 셋째, 적대적-자율적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부모의 방임형 태도로서 아동은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넷째, 적대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하는 태도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와 내면화된 갈등·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수줍어하고 사회적으로 움츠리고 자학적이며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Hurloc(1991)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를 기대, 지배, 거부, 허용, 과보호, 수용, 복정, 관대, 편애적인 태도로 나누었으며, Roe와 Siegelman(1963)는 부모의 수용-거부, 무관심-강요, 관심-무관심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이경숙, 2005에서 재인용). 한편 Rohner(1991)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였는데,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 혹은 주의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애정의 정도는 아주 많은 것에서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 연속선을 부모의 애정적 차원(warmth dimension)이라고 하였으며, 한 쪽 끝에 수용하는 부모가 다른 쪽 끝에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 부모의 수용에는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웃어주기 등의 신체적 표현과 칭찬해주거나 아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언어적 표현이 포함된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행동은 수용-거부, 자율-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은 아동의 행동, 인지, 정서 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애정)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사회화 이론이다. 부모의 수용과 거부는 개념적으로 양육태도의 온정(warmth)차원을 형성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부모 혹은 가장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따뜻함과 애정을 경험하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따뜻함과 애정의 정도는 아주 많은 것에서 거의 없는 것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Rohner는 이 연속선을 부모의 애정적 차원이라고 하였으며, 한쪽 끝에는 수용하는 부모가 다른 쪽 끝에는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jeju

2. 진로성숙도

Super(1957)는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도달한 수준 및 현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그의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Savickas(1984)는 진로성숙도를 각 개인이 나이에 적합한 직업결정을 내리고 적합한 진로 발달 과업을 이뤄나가기 위한 준비도라고 보았고 개인이 지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정도 및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수준이라고 하였다(김옥숙, 2001에서 재인용).

Gribbons & Lohnes(1964)은 진로성숙 수준을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으며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과정, 직업정보, 흥미, 가치들을 들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지닌 사람은 성공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직업선택 과정에 대해 스스로 잘 지각하고 있어서 대안적인 직업에 대한 고려, 현재 행동을 미래 목표에 결부시키는 능력, 직업선택에서 자기 신뢰감의 높은 수준 유지, 현실적 요구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응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추세영, 1996에서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Carrer maturity)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의 이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 등 자아의 이해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란 직업정보, 일과 직업의 조건, 직업관 및 직업윤리 등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통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설아, 2010에서 재인용).

Criti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수준이며, 그 선택을 현실적이고 독자적이며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 정도와 직업적 준비의 정

dCollection @ jeju

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진로성숙 수준에 따라 삶의 방향이 규정되고 진로성숙도는 직업선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적 성숙수준으로 보았다(정희영, 2010에서 재인용).

Crities(1981)는 직업성숙 보다 진로성숙이란 개념이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고 보아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수준으로 개념화하였으며, Super의 성향, 직업정보, 계획, 현명성의 영역이 그의 진로성숙의 모형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단지 차이점으로 Super는 직업선택의 결과에 중점을 두었고, 그는 과정(process)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경숙, 2005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과 발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진로성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 등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인으로 수용, 애정 또는 자율 등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진로에 대한 의식수준이나 발달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이기학, 1992; 이광자, 1998; 이연숙, 2001; 이현숙・조한익, 2004).

김숙이(2005)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적극적, 신뢰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는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진로발달을 할 수 있

dCollection @ jeju

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김충기 · 천귀순, 2003; 소희숙, 2003; 류천의, 2006; 김미숙, 2009).

류천희(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성을 중시하고 성취를 중시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자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높은 포부수준을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진로태도의식을 심어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성모(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중 부친의 양육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성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모친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미화(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에서 정상모(2001)는 부모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한다고 했다. 이는 선행연구(오성자, 2000; 남미영, 2002; 류천희, 2006; 신명희, 200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박은혜(2006)의 연구에서도 결정성을 제외한 관여성, 타협성, 독립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가 높으며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은 개인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단계에 대하여 현재 그 직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 사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용하고 시급한 선택의 과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중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dCollection @ jeju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대학생 남녀 총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대학별 재학인원에 따라 유층표집 하였으며, 이중 한부모에 대해서만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응답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등 99명을 제외한 401명(남학생 187, 여학생 214)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연령, 부모학력, 경제수준별 분포

변인	선택항목		N	백분율(%)
성별	남자		187	46.6
	여자		214	53.4
학년	1학년		219	54.6
	2학년		91	22.7
	3학년		70	17.5
	4학년		21	5.2
연령	20세 이하		201	50.1
	21~23세		117	29.1
	24~26세		69	17.2
	27~29세		14	3.5
부모학력	초등	부	16	4
		모	13	3.2
	중등	부	28	7
		모	48	12
	고등	부	185	46.1
		모	225	56.1
	대학	부	147	36.7
		모	108	26.9
	대학원	부	25	6.2
		모	7	1.7

dCollection @ jeju

경제력	상	4	1
	중상	52	13
	중	237	59.1
	중하	93	23.2
	하	15	3.7
전체		401	100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를 위해서 권순명(1993)이 개발한 Likert식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고,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 사용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aire) 척도의 60문항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거부 차원의 30문항과 정원식(1984)에 의해 제작된 가정환경 진단검사에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통제 차원의 30문항을 추가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응답방법은 응답자가 4가지, 즉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의 어느 하나의 빈 칸에 √표를 하도록 하고 문항 번호별로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각 차원별로 최저 30점, 최고 120점을 얻을 수 있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의 하위영역별 검사의 개요 및 문항분석은 <표Ⅲ-2>와 같다.

채점방법은 수용-거부 차원에서 수용에 관련된 문항과 거부에 관련된 문항 중 긍정문항은 원점수대로, 부정문항(42, 46)은 역산하여 점수가 많을수록(120점) 수용적인 것으로, 점수가 적을수록(30점) 거부적인 것으로 하였다.

자율-통제 차원에서도 자율과 통제에 관련된 문항중 긍정문항은 원점수대로, 부정문항(11, 55)은 역산하여 점수가 많을수록(120점) 자율적인 것으로, 점수가 적을수록(30점) 통제적인 것으로 하였다.

dCollection @ jeju

<표Ⅲ-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영역	하위검사의 개요	문항번호
수용적 태도	애정, 이해, 존중 등의 태도	1, 5, 9, 13, 17, 21, 25, 29 33, 37, 41, 45, 49, 53, 57
거부적 태도	무시, 학대, 무관심 등의 태도	2, 6,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54, 58
자율적 태도	자유, 자발적 참여,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	3, 7, 11, 15, 19, 23, 27, 31 35, 39, 43, 47, 51, 55, 59
통제적 태도	지시, 지배, 억압, 금지 등의 태도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역산문항 : 11, 42, 46, 55 *문항내용은 부록 2-1참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

구분	하위영역별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 α	2개 영역별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 α	전체 Cronbach α
부	수용적 태도	.878	긍정적 태도	.880	.723
	자율적 태도	.645			
	거부적 태도	.806	부정적 태도	.871	
	통제적 태도	.766			
모	수용적 태도	.882	긍정적 태도	.861	.730
	자율적 태도	.569			
	거부적 태도	.822	부정적 태도	.875	
	통제적 태도	.782			

부의 양육태도는 .723, 부의 양육태도를 각각의 태도별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수용적 태도는 .878, 자율적 태도는 .645, 거부적 태도는 .806, 통제적 태도는

dCollection @ jeju

.766, 모의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730이고, 모의 양육태도를 각각의 태도별로 살펴보면 수용적 태도는 .882, 자율적 태도는 .569, 거부적 태도는 .822, 통제적 태도는 .782이었다. 또한 수용-자율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거부-통제적 태도를 부정적 태도로 집단화했을 경우의 신뢰도 계수는 부의 경우 긍정적 태도는 .880, 부정적 태도 .871로 나타났으며, 모의 경우는 긍정적 태도 .861, 부정적 태도는 .875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Crities(197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원중(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김옥숙(2001)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태도척도만 사용하였다. 진로성숙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43이며, 결정성과 성향,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Ⅲ-4>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내 용	해당 문항번호
결정성과 성향	진로 방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정도, 진로에 대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독립성	진로 선택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의 정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관여성	진로 선택에 대한 주체적, 독립적, 타인 의존의 정도	29, 30, 31, 32, 33, 34, 35
타협성	진로 선택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에 대한 척도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번호에 밑줄이 표시된 문항은 역산문항임.

dCollection @ jeju

<표Ⅲ-5> 진로성숙도의 신뢰도계수

구분	하위영역	Cronbach α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성과 성향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	.843

3. 연구절차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도내에 위치한 4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관계자에게 설문지의 내용과 조사 성격을 설명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와 진로성숙(결정성과 성향,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dCollection @ jeju

넷째,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JEJU 1952

dCollection @ jeju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표Ⅳ-1>과 <표Ⅳ-2>에 제시하였다.

<표Ⅳ-1>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남자(n=187)		여자(n=214)		t
	M	SD	M	SD	
부모 양육태도	2.49	.21	2.45	.18	1.93
부 양육태도	2.47	.22	2.45	.20	1.21
모 양육태도	2.51	.22	2.46	.19	2.45*
부 긍정적 양육	2.92	.37	2.84	.34	1.72
부 부정적 양육	2.12	.45	2.13	.39	-.40
모 긍정적 양육	2.92	.37	2.84	.34	2.29*
모 부정적 양육	2.11	.44	2.09	.37	.45

*p<.05

<표Ⅳ-2>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자(n=187)		여자(n=214)		t
	M	SD	M	SD	
부 수용적 양육태도	2.87	.52	2.81	.49	1.17
부 거부적 양육태도	2.10	.47	2.07	.45	.58
부 자율적 양육태도	2.79	.34	2.71	.35	2.23*
부 통제적 양육태도	2.14	.49	2.20	.41	-1.33
모 수용적 양육태도	3.02	.47	2.93	.46	1.94
모 거부적 양육태도	2.06	.48	2.02	.43	.99
모 자율적 양육태도	2.81	.33	2.74	.30	2.29*
모 통제적 양육태도	2.15	.49	2.16	.41	-.19

*p<.05

dCollection @ jeju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는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t=2.45, p<.05). 또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중 부와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진로성숙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표Ⅳ-3>에 제시하였다.

<표Ⅳ-3> 성별과 진로성숙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자(n=187)		여자(n=214)		t
	M	SD	M	SD	
진로성숙도	3.28	.41	3.21	.32	1.91
진로-결정성과 성향	3.30	.75	3.13	.65	2.35*
진로-독립성	3.81	.81	3.97	.75	-2.05*
진로-관여성	2.95	.38	2.92	.36	.61
진로-타협성	3.24	.33	3.14	.27	3.37**

*p<.05, **p<.01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중 결정성과 성향(p<.05) 및 타협성(p<.01)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p<.05).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4>, <표Ⅳ-5>와 같다.

dCollection @ jeju

<표Ⅳ-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간의 상관분석

변인	진로성숙도	결정성과 성향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
부 양육태도	-.113*	-.033	-.078	-.138**	.108*
모 양육태도	-.113*	-.040	-.169**	-.217**	.081
부 긍정적 태도	.279**	.258**	.242**	-.118*	.119*
부 부정적 태도	-286**	-.247**	-.308**	-.030	-.004
모 긍정적 태도	.288**	.285**	.250**	-.142**	.147**
모 부정적 태도	-.368**	-.290**	-.390**	-.099*	-.047

*p<.05, **p<.01

<표Ⅳ-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과 진로성숙도간의 상관분석

변인	진로성숙도	결정성과 성향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
부 수용적 태도	.234**	.236**	.203**	-.101*	.086
부 거부적 태도	-.257**	-.225**	-.294**	-.006	.012
부 자율적 태도	.262**	.241**	.255**	-.122*	.145**
부 통제적 태도	-.266**	-.226**	-.270**	-.049	-.019
모 수용적 태도	.276**	.271**	.238**	-.126*	.136**
모 거부적 태도	-.307**	-.246**	-.348**	-.060	-.013
모 자율적 태도	.243**	.243**	.213**	-.137**	.132**
모 통제적 태도	-.359**	-.279**	-.357**	-.119*	-.072

*p<.05, **p<.0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분석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 및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하위요인들(긍정, 부정, 수용, 거부 자율, 통제)에 대하여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p<.05, p<.01).

dCollection @ jeju

진로성숙의 하위요인들(결정성과 성향, 독립성, 관여성, 타협성)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도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의 양육태도중 부정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관여성 및 타협성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모의 양육태도중 거부적 양육태도와 관여성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의 부정적, 통제적 및 거부적 양육태도 또한 타협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Ⅳ-6>.

<표Ⅳ-6>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2	B	Beta	t
진로성숙	부 양육태도	.033	.001	-.058	-.033	-.664
	모 양육태도	.113	.013	-.201	-.113	-2.279*
	부 긍정적 양육	.265	.070	.247	.265	5.492***
	부 부정적 양육	.286	.082	-.252	-.286	-5.972***
	모 긍정적 양육	.288	.083	.298	.288	6.015***
	모 부정적 양육	.368	.136	-.332	-.368	-7.910***

*p<.05, ***p<.001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중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보다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양육태도를 긍·부정적 집단으로 나눠 분석하였을 때 부와 모의 양육태도 모두 진로성숙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p<.001). 긍·부정적 집단의 분석결과에서도 모의 긍·부정적 양육태도가 부의 긍·부정적 양육태도 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설명력(13.6%)을 나타냈다.

dCollection @ jeju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Ⅳ-7>에 제시하였다.

<표Ⅳ-7> 진로성숙에 대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2	B	Beta	t
진로성숙	부 수용적	.234	.055	.170	.234	4.811***
	부 거부적	.257	.066	-.205	-.257	-5.322***
	부 자율적	.262	.068	.277	.262	5.413***
	부 통제적	.266	.071	-.217	-.266	-5.510***
	모 수용적	.276	.076	.218	.276	5.737***
	모 거부적	.307	.094	-.249	-.307	-6.446***
	모 자율적	.243	.059	.285	.243	5.014***
	모 통제적	.359	.129	-.294	-.359	-7.682***

***p<.001

<표Ⅳ-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와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한 예언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부의 양육태도중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7.1%)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또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12.9%)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제시한 <표Ⅳ-6>의 결과에서 부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영향력을 나타난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중 통제적 양육태도가 거부적 양육태도 보다 진로성숙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수용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모의 영향력이 부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로성숙에 대한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 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다음은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와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점수를 합산한 후 상위 25%(n=100, 총점 6.18이상), 하위 25%(n=100, 총점 5.22이하)에 해당되는 사례를 집단으로 하여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Ⅳ-8>에 제시하였다.

<표Ⅳ-8>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분석

구 분			n	M	SD	t
진로성숙도	긍정적 양육	상	100	3.445	.383	7.58***
		하	100	3.068	.317	
결정성과 성향	긍정적 양육	상	100	3.547	.745	6.49***
		하	100	2.944	.556	
독립성	긍정적 양육	상	100	4.287	.708	8.26***
		하	100	3.428	.762	
관여성	긍정적 양육	상	100	2.879	.394	-.80
		하	100	2.923	.383	
타협성	긍정적 양육	상	100	3.271	.307	2.56*
		하	100	3.162	.292	

*p<.05, ***p<.001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상·하에 따라서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결정성과 성향, 독립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타협성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05). 그러나 관여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남녀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9>와 <표Ⅳ-10>에 제시 하였다.

dCollection @ jeju

<표Ⅳ-9>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양육구분	n	M	SD
남자	긍정적 집단	100	3.48	.43
	부정적 집단	100	3.06	.41
여자	긍정적 집단	100	3.40	.31
	부정적 집단	100	3.07	.31

<표Ⅳ-10> 성별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량분석 결과

	SS	df	MS	F
성별	.206	1	.206	1.762
양육구분	6.912	2	3.456	29.576***
성별*양육구분	.153	2	.076	.653
오차	46.152	395	.117	
전체	53.719			

***p<.001

<표Ⅳ-9>와 <표Ⅳ-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진로성숙도에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만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Collection @ jeju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수용-자율)일때 진로성숙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거부-통제)일때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중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 보다 진로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2-2.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에 따라 진로성숙도에는 유의

dCollection @ jeju

미한 차이가 있을것이다.

가설 3.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가설 4.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1.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대학생 총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학별 재학인원에 따라 유층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중 472부를 회수하여 그 가운데 무응답이나, 한 부모에 대해서만 응답한 경우 그리고, 불성실하게 반응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71부를 제외한 401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를 위해서 권순명(1993)이 개발한 Likert식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1981)에 의해 제작되었고,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 사용된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aire) 척도의 60문항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거부 차원의 30문항과 정원식에 의해 제작된 가정환경 진단검사에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통제 차원의 30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그리고 진로성숙도 검사는 Crities(1978)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원중(1984)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김옥숙(2001)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jeju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와 모 양육태도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하여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나타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p<.05$, $p<.01$).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별로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p<.05$, $p<.01$)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수용-자율)일때 진로성숙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거부-통제)일때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긍정되었다.

둘째,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한 예언변인임이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는 통제적 양육태도(7.1%)가 모의 양육태도 또한 통제적 양육태도(12.9%)가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수용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부의 양육태도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중 모의 양육태도가 부의 양육태도 보다 진로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 2-1】은 긍정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n=100$)이라고 지각한 경우와 부정적($n=100$)이라고 지각한 경우의 상·하위 25%에 대하여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한($M=3.44$) 경우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한($M=3.07$) 경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따라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을것이다.' 라는 【가설 2-2】는 긍정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는 남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남학생($M=2.51$)이 여학생($M=2.46$)보다 조금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부와 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dCollection @ jeju

다($p<.05$). 따라서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다.'라는 【가설 3-1】은 긍정되었다.

넷째,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도간에 차이($p<.001$)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성별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4】와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없었다. 진로성숙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학년(나이)과 진로성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진로선택에 관한 발달이론의 핵심이라고 보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연구표본의 학년간의 케이스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이라는 특성상 나이의 분포가 학년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긍정적 양육태도의 변인인 수용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보다 자녀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셋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학생인 경우 모의 양육태도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와 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학생들이 부와 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덜 지각하고 있는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인 경우 대학생활과 다양한 써클활동등을 통해 이성교제, 음주문화등의 사회의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남학생 보다 좀 더 통제하고 규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성별과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결론과 일맥상통하며, 이경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성별의 차이 보다는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진로성숙 수준을 높일수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기관 및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진로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 및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행과제가 이루어진 후 진로상담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성숙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외적인 변인들을 추가로 포함시켜 연

dCollection @ jeju

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다루었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진로상담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내 대학간의 비교 또는 전국 모집단을 대상으로 폭 넓은 연구를 실시하여 도내 대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숙도 및 지역내 대학간의 비교 또는 전국 대학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등 추가적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또한 제주도내 대학을 전체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모집단의 크기가 협소하여 대학간의 비교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끝으로, 현재의 대학생들은 시시각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사회에 곧 참여해야 한다는 불안과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의 공포로 인해 조급하고 두려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과 교육기관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곧 사회의 한 축이 되어야할 대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성숙을 높일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 진로성숙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와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보다 성숙되고 활발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jeju

참 고 문 헌

강재희(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전신건강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민(2009). **부모양육태도와 페르소나 성격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만(200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2008).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희망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설아(2010). **부모지지와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2005). **부모의 직업, 학력수준, 진로유형 및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유형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오남(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83~104.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식(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Collection @ jeju

김예수(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박은정(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멘토관계기능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은(2007). **여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혜경(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희숙(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희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사회 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영지, 이기학(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Vol. 19** No.4, 1023-1039.

우현주(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희(2006). **중학생의 배경변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05). **공업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주(2002).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가정환경특성,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길(2000).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dCollection @ jeju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무(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국(199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개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200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아(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조한익(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 Vol.16,** No.1, 89-105.

이현자(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상옥(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은정(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멘토관계기능이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하(1994).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지(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몰입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해은(2005).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신건강.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4집**. 105~135.

정행옥(2005).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Collection @ jeju

정희영(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화(2005). 내용분석을 통한 남자대학생의 아버지와의 경험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115~141.

좌태실(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세영(1996).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수준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석강(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지영(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rntory. Monterey, CA: CTB/McGraw-Hill.

Fishbein, M. & Aizen, I. B.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achsetts Addison-Wesley.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Shifts in adolescents vocational values. Personal and Guidence Journal. Vol. 44. pp.248-252.

Schaefer.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8(5), 185-190.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Columbia Univ. 27-28.

dCollection @ jeju

<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Maturity

Yang, Soon Mi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Sung 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2] is to examine the effect and difference of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the career maturity by gender and grade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identifying how the career maturity is depending on the parenting attitude types and what effects the perceived types of parenting attitude have on career maturity.

In relation to the study purpose above,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have been set up.

Study Question 1. What effect does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have on career maturity?

Study Question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This study has used the Likert type 4 point rating scale developed by Kwon, Soon

2)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mmitte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0.

dCollection @ jeju

Myung (1992) by organizing 30 questions of acceptance-denial aspect among the PARQ(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roduced by Rohner (1981) and adapted by Kim, Eon Ju (1988) as well as 30 questions of self regulation-environment aspect among the family environment diagnosis test produced by Jung, Won Shik for the investigation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lso for the career maturity test, the one that has been revised and improved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produced by Crities(1978) by Kim, Ok Sook (2001) after adapting to fit the circumstances of Korea by Kim, Won Jung (1984) has been used. For the statistics processing of all gathered data, the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using SPSS WIN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hile showing positive correlation o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negative correlation o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lso, each of sub-factors on parenting attitude (accepting, denying, self regulating, controlling) have also shown a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the fact that all sub-variables of parenting attitude are significant prediction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was shown. Among the sub-variables, the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has shown a high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while the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has shown higher influence than the parenting attitude of fathers.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iving the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gender.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reer maturity followed by interaction between gender,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presented.

Because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has influence on the career maturity of

dCollection @ jeju

university students, a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for the subject has to take place by considering th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at the same time in conside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coher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at the scene of career training and counseling. Most of all, because the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has highes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while denying and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have nega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the education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must be expanded through parent training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career maturity while the intervention of applying the change of awareness program to perceive the parenting attitude in a positive way is needed even during the career counseling or the career programs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By doing so, a stable psychological basis has to be prepared by raising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fear and anxiety of having to choose and determine the career of uncertain future.

dCollection @ jeju

부 록

1. 지각한부모양육태도검사 ····· 41

2. 진로성숙도검사 ····· 42

dCollection @ jeju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진로 및 학업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를 얻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순수한 연구와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기록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 익명이 보장되며, 응답에 대한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모든 문항에 대하여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설문자료를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의미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순 미 (☎010-6506-8015)

♣ 이 문항은 설문의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귀하의 성별과 학년은? 남____ 여____ ____학년(연령: 세)

② 부모님의 학력은? 부 - 초등____ 중등____ 고등____ 대학____ 대학원____
모 - 초등____ 중등____ 고등____ 대학____ 대학원____

③ 귀하가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____ 중상____ 중____ 중하____ 하____

dCollection @ jeju

1. 다음의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각각 그 정도에 따라 √해 주십시오.

문 항	어머니				아버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좋은 점을 말씀 하신다.								
2. 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3. 나의 힘이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신다.								
4.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신다.								
5. 나에게 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6. 나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웃기도 하신다.								
7. 가족회의에서 자녀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하신다.								
8.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단치신다.								
9.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신다.								
10. 나를 무섭게 대하신다.								
11.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모두 사다 주실때가 있다.								
12. 친구들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다.								
13. 나의 비밀도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신다.								
14. 화가 나셨을때 나를 심하게 벌주신다.								
15.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신다.								
16. 등교, 외출할때 복장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신다.								
17. 내가 잘 한 일이 있을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주신다.								
18. 내가 잘못하면 내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신다.								
19. 자녀들을 훈육 할 때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20.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했을 경우, 나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21. 남들에게 내 칭찬을 하신다.								
22.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더 버릇이 좋다고 생각하신다.								
23. 스스로 생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24. 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 싫어하신다.								
25.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26.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27. 나의 일상 대화나 행동에 관해 별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28.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29.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30.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신경쓰지 않으신다.								
31.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해 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32. 나에게 "~안돼" 또는 "~하면 못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33. 나에게 늘 친절히 대해 주신다.								
34. 내가 잘 못하는 경우에는 무척 창피하다고 하신다.								

dCollection @ jeju

문 항	어머니				아버지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내가 부모의 잘못된 일을 비평하여도 받아주신다.								
36. 전통적 가풍에 따라 행동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37. 내가 잘 한 일이 있을때는 내가 퍽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								
38. 내가 생각하기에 잊어서는 안 될 일도 잊어버리곤 하신다.								
39.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 꾸짖으신다.								
40.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41. 내가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하신다.								
42.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신다.								
43. 내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주신다.								
44.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45. 내가 겁이 날때나 걱정이 있을때는 나를 도와 주시려고 한다.								
46. 계획을 세우실때 나의 의견을 참고하신다.								
47. 집안 일의 조력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특별히 지시 하지 않으신다.								
48. 용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신다.								
49. 불편하셔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끔 해 주신다.								
50. 화가 나시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신다.								
51. 과외 활동이나 서클 활동을 할때 나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다.								
52. 한번 지시, 명령하신 것은 꼭 이행하도록 강제하신다.								
53. 내가 하는 일들에 퍽 흥미를 갖고 계신다.								
54. 내가 못된 짓을 할 경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신다.								
55. 내가 몇 시에 자고 일어나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								
56. 자신의 허락 없이는 자녀의 야간 외출을 못하게 하신다.								
57. 나를 늘 즐겁게 해 주시려고 애쓰신다.								
58.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59. 친척들의 가족 행사에 가급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 하신다.								
60.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독점하려 하신다.								

2.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장래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 적절한 어떤 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람들은 나에게 여러 직업에 대해 얘기해 준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할지를 모른다.					
3.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4. 나는 취업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5.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6.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계열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dCollection @ jeju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자주 바꾼다.					
9. 나는 장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어떻게 지낼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10. 나는 장래 나의 직업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 될지 잘 모르겠다.					
11.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12. 나는 나에게 큰 호감을 주는 직업을 발견할 수가 없다.					
13. 나는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14.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계획이 실현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15. 나는 내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 어렵다.					
16. 나는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17.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8. 나는 그냥 놀기보다 차라리 일 하기를 더 좋아한다.					
19.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0.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신다.					
21. 직업을 선택할 때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22. 직업 선택에서 부모님의 충고를 따른다면 크게 잘못 되지는 않을 것이다.					
23. 나는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4.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직종을 선택하라고 말해준다면 좋겠다.					
25.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6.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27.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줄수 있을 것이다.					
28.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29.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30.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니까 직업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31.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업에 대하여 그리 걱정하지 않겠다.					
32. 직업의 선택은 거의 우연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본다.					
33.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34.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걱정할게 없다.					
35.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					
36.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37. 어떤 직업에서건 성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38. 나는 때때로 직업포부 수준과 나의 수준과의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39. 직업을 선택할때는 미리 여러종류의 직종을 경험한 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선택의 방법이다.					
40.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은 단 하나뿐일 것이다.					
41.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					
42. 때때로 내가 하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43. 직장에서는 얼마나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 누구를 알고 있는냐가 더 중요하다.					
4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45. 우리는 앞으로 자신이 유명해질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6. 어떤 종류의 직종에 취직을 하든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47. 나는 직업 포부가 높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끝까지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dCollection @ jeju